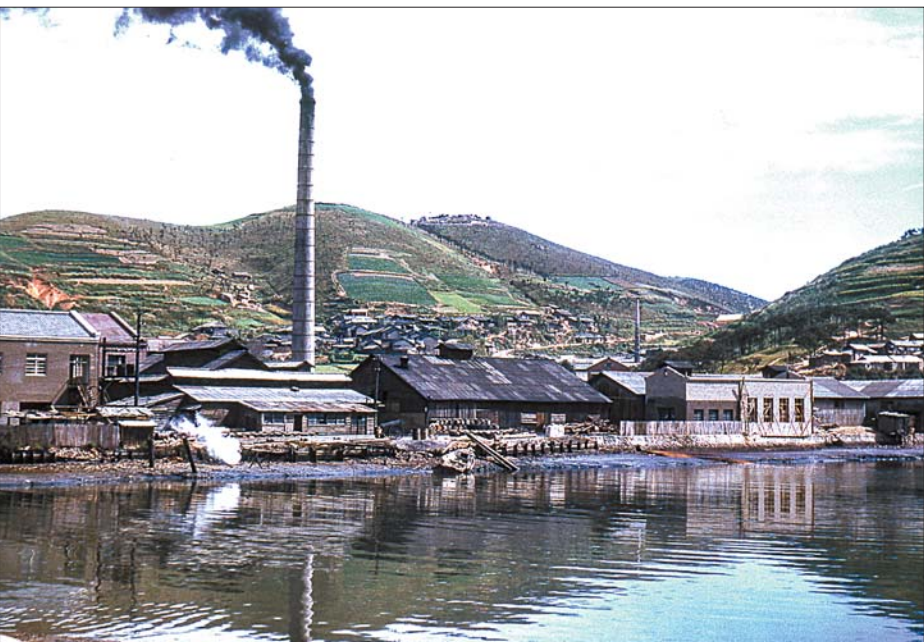


# 전쟁의 광기 비껴간 남녘의 보금자리 그 속에 머문 역사의 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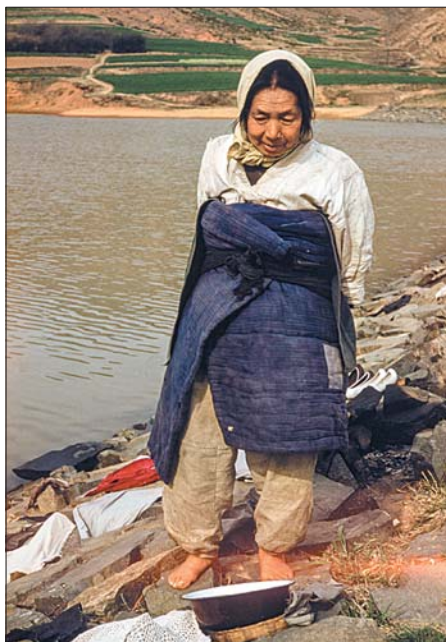
혁동의 현대사 갈무리한  
‘피란시절 남구의 기억’



1952년 부산수산대학교(현 부경대) 본관에서 바라본 웅소마을 모습. 왼쪽이 샘물터산이고 이 산과 구릉이 연결된 오른쪽 산이 우륵산공원이 있는 천제산이다. 천제산 오른쪽으로 남구청 옆 황령산 줄기와 연결된 산자락 사이로 대연고개가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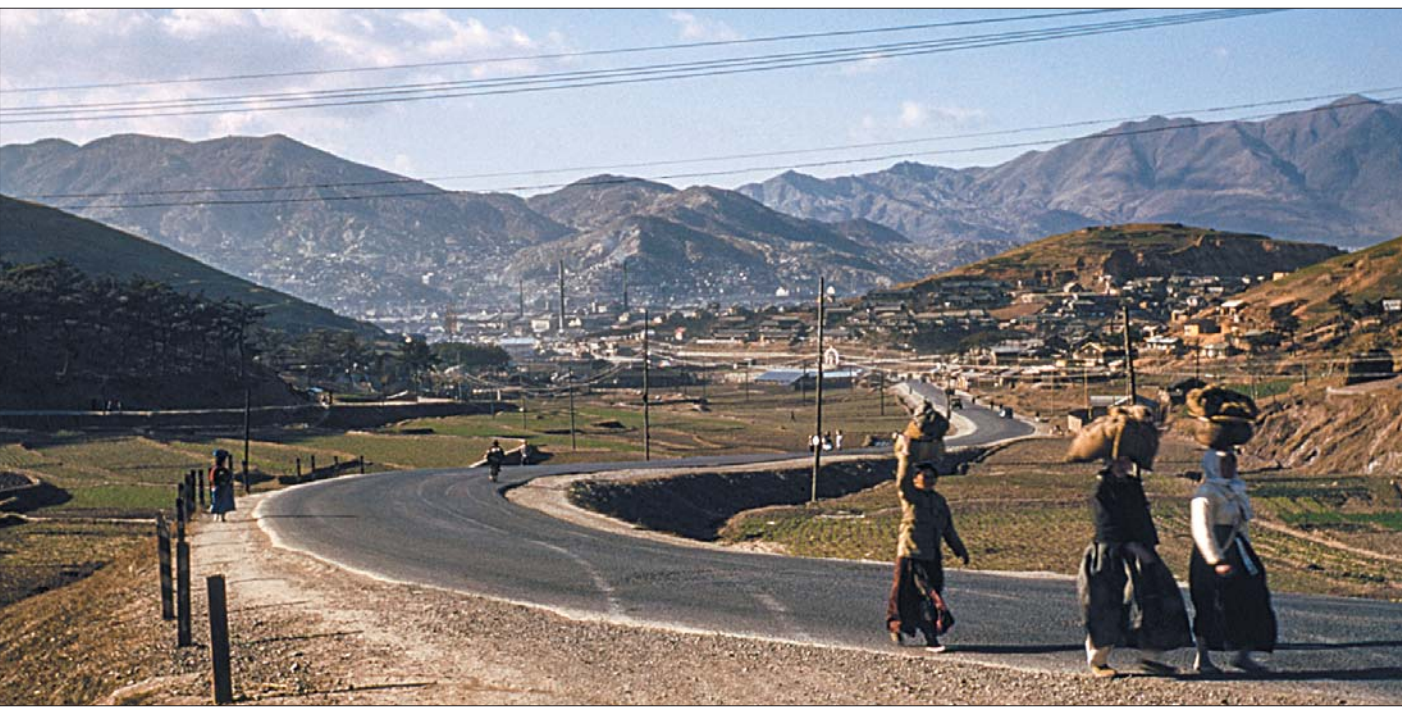
1952년 문현동 동천하구 선착장과 대연고개 모습. 현재 병일동 우산위브포세이온 아파트와 자성대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 곳은 동천 하구 범일동 선착장 너머로 대연고개가 보인다.



1952년 대연동 뒷골에서 손자를 얻은 아내이 빨래하는 모습. 뒤로 당시의 꽃골의 규모가 짐작된다.



1954년 범일동에서 동천을 가로질러 우원동으로 연결되던 우원선 철길을 사람들이 건너고 있다. 이 철길 자리에 현재 두지개다리가 놓여 있다.



1953년 남구 대연동 대연고개를 넘는 여인들이 정을 본 물길들을 보듯이 써서 머리에 이고 대연동 현 대연고대 버스정류장 주변을 지나고 있다.



1952년 프랑스에서 참전 군인들을 위해 만든 프랑스 선박이 젊은 인개로 인해 오목대 앞 해상에서 좌초된 모습.



1952년 용당동 문수사 대웅전 옛 문수사현 코요동해루재 아파트 단지 모습.



1952년 부산수산대학교 교정에 미군 부대가 들어선 모습. 이 건물 앞에는 유엔기념공원이 조성되어 있다.

## 휘발되는 향토사 채집한 ‘영원한 남구인’

■ 공기화 부산교대 명예교수 ‘피란시절...’ 발간 일등공신

내년 6.25전쟁 70주년을 앞두고 남구가 기록 발간한 ‘피란시절 남구의 기억’은 미공개 화귀사건과 전쟁을 직접 겪은 주민들의 생생한 증언 그리고 유엔기념공원 안장자 명단 수록 등 남구가 만든 역대 간행물 가운데 ‘기념비’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책자 완성에 공이화(72) 부산교육대학 명예교수의 역할이 매우 컸다. 고 회를 남긴 그는 마을 원로 26명을 직접 찾아가 구술을 통해 역사를 채집했다. 인터뷰 기간만 6개월이 걸렸다. 연로한 어르신들을 만나는 것은 쉽지 않았다. 인터뷰를 위해 집을 방문할 때 민선으로 갈 수 없어 늘 자신의 호주머니를 털어 꾸러다 들고 가야 했다. 오양방울에 장기 임원한 주민과 병상 인터뷰를 진행하는가 하면 “전쟁 기억은 떠올라기도 싫다”는 주민들을 삼고초려 끝에 성사시키기도 했다. 하지만 문헌박대 당해 끝내 만나지 못한 주민들도 적지 않다고 한다.

“구술을 남긴 박기을 어른들은 연세에 비해 기억력도 좋고 인터뷰에 대한 의지도 강했지만 대부분은 기억이 쇠해 인터뷰에 애를 많이 먹었어요.” 공 교수는 마을원로 인터뷰 외에 책자에 실린 350여 장의 사진에 자세한 설명을 달았다. 사진 설명만으로도 당시의 상황을 충분히 만날 수 있는 의미가 높다.

대연동 뒷골 지역에서 태어난 공 교수는 선대부터 남구에서 생활한 ‘옛사람’ 남구인이다. 서울대학교 사범대학을 나온 뒤 서울에서 잠시 중학교 교사로 근무한 몇 년을 제외하면 일평생 남구를 벗어난 적이 없다. 부산교대에서 교편을 잡다 2012년 8월 정년을 맞은 뒤 남구의 역사를 찾아다니는 향토 사학자로서 본격 변신했다. 지난 2014년 남구향토지 발간에 주



2016년 6월 공기화 명예교수가 유엔기념공원에서 사신수습팀으로 근무한 영국군 참전용사 제임스 그루디 씨를 인터뷰하고 있다.

구순 남근 마을 원로 26명 6개월 인터뷰  
삼고초려 끝 인터뷰... 문헌박대도 당해  
호주머니 털어 취재... “사명감으로 한 일”

아다니는 향토 사학자로서 본격 변신했다. 지난 2014년 남구향토지 발간에 주

도적인 역할을 맡았고 남구와 관련된 수필집 3편을 출간했다. 이런 공로로 제20회 ‘자랑스러운 구민상’ 애항부문을 수상하기도 했다. “마을 원로들과 대화하면서 전혀 알지 못한 역사의 뒷이야기가 술술 나올 때는 몸에 전율이 일었다”는 공 교수는 “주민들 연세가 많아 조바심과 사명감으로 발품을 팔았다”며 겸연쩍게 웃었다.



드론으로 촬영한 10월 하순의 유엔기념공원 전경. 사진의 상단 부분이 유엔군 전몰용사 2,297명이 안장된 주요역이다.

묘지 조성에 참여한 주민 증언 쏟아져  
“매장 사신 파낸 뒤 햇빛에 말려 안장  
남구 앞바다 온통 핏빛으로 물들어  
안장자 군복으로 옷 만들어 입기도”

2001년 3월 30일 한국이 명칭을 재한 유엔기념공원으로 바꿔 사용하고 있다.

# 유엔묘지 조성 싶었던 증언

유엔기념공원은 남구를 넘어 국내의 대표 명소로 손꼽히지만 묘지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해 알려진 바는 거의 없다. 민간이 출입은 1959년에야 허용되었고, 묘지 관리도 초기에는 미군이 맡았다가 이후 유엔으로 바뀌었고 1974년에 한국으로 넘어왔다. 하지만 최근 남구가 책자 ‘피란시절 남구의 기억’을 간행하면서 유엔묘지 조성에 참여한 주민들을 직접 만나 살아있는 증언들이 확보됐다.

서봉출(90) 씨는 “사체를 실은 열차가 우암역에서 서면 트럭으로 시신을 옮겨 유엔묘지 입구에 임시매장했다. 이때 반드시 검사(부검)를 했다. 이후 묻었던 시신을 파내면 체액이 흥건해 시신을 햇빛에 말렸다가 다시 안장했다”고 증언했다. 서 씨는 유엔묘지 만드는 일을 1년간 해 여기서 번 돈으로 대학에 진학할 수 있었다. 임준규(79) 씨는 용당동 바다에서 시신을 간직한 담요와 옷을 빨았던 기억을 되짚었다. “바다가 피로 물들었고 피 냄새가 진동했어요. 물이 얇은 곳에는 구더기가 많았습니다.” 6.25 전후 10년간 우암동 당장으로 근무한 박기을(92)씨는 “마을사람들이 시신을 싣 담요와 군복을 세탁해 옷을 만들어 입었는데, 담요로 만든 코트도 고급스러웠다”고 회고했다. 유엔묘지 조성을 도우며 용당마을을 했다는 김봉희(84) 씨는 “유엔묘지는 석포마을 못 가 언덕에 먼저 조성했는데 시신이 너무 많이 오는 바람에 지금의 당곡마을 쪽으로 크게 확장했다. 대신 북한군 시신은 평정산에 마구 묻었다”고 말했다. 그는 “시신은 유엔묘지 안 콘센트에서 부검했는데 젊은 전사자들이 심혈관이 막혀있는 등 상인병을 갖고 있다는 검사결과를 나중에 미국 잡지에서 서 읽고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1952년 한겨레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유엔묘지를 방문한 일화도 소개했다. “아이젠하워가 수영비행장에 내려 유엔묘지를 둘러보는데, 이때가 겨울이라 묘지에 푸른 잔디를 깔 수 없었는데, 피란 내려온 현대건설 정주영 사장이 잔디 대신 보리를 옮겨 심는 아이디어를 냈어요.”



1952년 유엔기념공원(당시 유엔묘지)의 입구. 현재 유엔묘지의 유엔참전기념물 자리가 당시 유엔기념공원의 입구가 있었다. 당시 대연동에 거주한 송인근(84) 씨에 따르면 이 무렵 입구 양쪽 기둥에 'UNITED NATIONS CEMETERY' 라고 새겨진 동판이 누굴가에 의해 훼손된 뒤 도난 당했다고 증언했다. 오른쪽 사진은 철문이 놓인 묘지 정문.

### 신일 이불 솜공장



- 한솜을 틀어서 새솜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숙련된 전문가가 직접 이불 꿰매 드립니다.
- **혼수이불**, 침대카바, 애기이불 있습니다.
- 100% 목화솜, 명주솜, 배개솜 있습니다.
- 사할 방식 주문·제작

☞ 위치 : 남구 동명로 146번길 47 (용호동)  
☎ 051-626-3558 / ☎ 010-3831-2457

유료광고

### 청송주왕산 쌀



20년을 정직하고 성실하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전문 취급품목 쌀, 잡곡, 기타 여러가지 곡산 농산물

☎ 628-0362 남구 전 지역 배달가능  
010-9340-1065 묵골시장 청송상회

유료광고

### 우리지압원



- 보건 복지부 인증 (안마 바우처 운영)
- 국가 공인 안마사
- 프로그램  
체형교정(목, 허리, 골반)  
만성피로 스트레스 관리  
건강안마 프로그램 운영

부산시 남구 묵골병원로 11  
성상빌딩 5층(우리지압원)  
예약번호 051-626-7575

유료광고

### 마미캠프 산후조리원 & 산모도우미




- ★ 20년 전통, 간호사 직영, 산모 발레요우 교실 운영
- ★ 완전 모유수유 관리, 호텔식 가족식 운영
- ★ 산생아실 CCTV 설치, 24시간 전후 케어
- ★ 전문 교육 이수 출장 산모 도우미 파견

☎ 051-623-1241 www.mammycamp.co.kr

유료광고

### 고선이 홍삼



29년 노하우 건강상담 환영

고려 홍삼 ▶ 6년근(구중구포) 홍삼액 100%

굿쌔 ▶ 건강기능식품(프로바이오틱스 외 20종)


태평선식 ▶ 식사대용선식, 15곡 귀리 선식 외 10종

천기초 ▶ TV 속 인기 건강식품 다양 취급

T. 051)628-6983 H. 010-9303-6983  
부산 남구청 옆 동원로알듀코아파트 정문 맞은 편

유료광고

### 다 쏘 건전지, 새 건전지로 가져 가세요!



가정, 학교 등에서 패전전지를 분리 배출하면 성품의 95%를 재활용할 수 있습니다. 쓰레기로 배출시 중금속으로 인해 토양과 수질이 오염됩니다.


패전전지 20개 ⇒ 새 건전지 2개 교환  
[청소행정과(청정도시) 또는 동행정복지센터]

분리배출

부산광역시 남구

유료광고

### KS 댄스스포츠 아카데미 오픈




- ★ 동호회 회원모집 (월 3만원/여성 2만원)
- ★ 단체반 회원모집  
월, 수, 금(5만원)  
오후 1시~2시(자이브, 룸바, 차차차)  
직접인을 위한 특별반:  
오후 7시~8시(자이브, 룸바, 차차차)  
(1인이 참석하더라도 수업할 예정입니다)

최고의 원목 바닥으로 사들인 KS댄스스포츠에서 건강 지키고 체형 교정 및 유행하고 스포츠학 실력 보내세요!!!  
초보 환영. 개인레슨 환영. 사교댄스 레슨 환영. 시간에 관계없이 연습 및 운동 가능

KS 댄스스포츠 아카데미 문의: 010-3556-3008

유료광고

### 2년이면 졸업하는 성인 중·고등학교 신입생 모집



현재 모집 중  
선착순 마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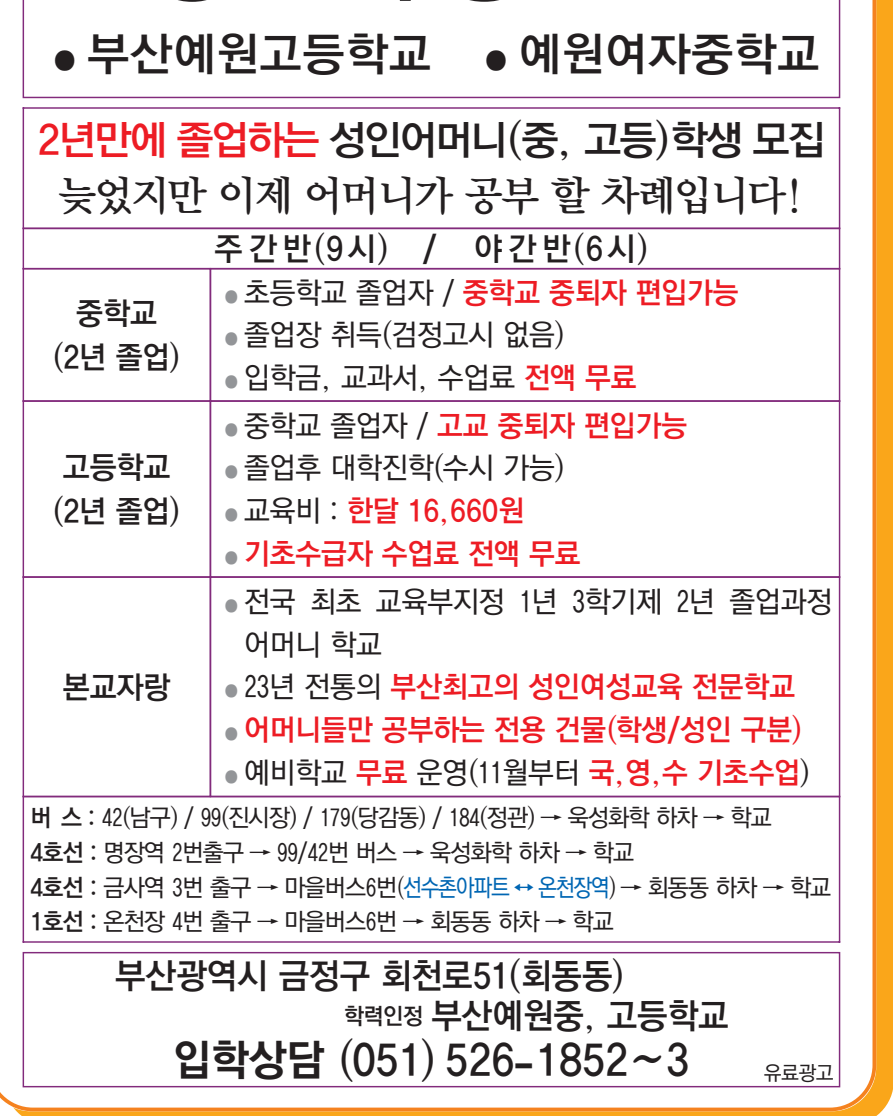
중학교 [2년제] 주간(3학급) 야간(2학급)	만 16세 이상 성인 남녀 전액무료(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비) 검정고시 없이 중학교 졸업장 취득
고등학교 [2년제] 주간(3학급) 야간(2학급)	만 16세 이상 성인 남녀 수업료 교육청 지원 검정고시 없이 대학진학 가능

지하철 장림역 2번 출구  
도보 5분 거리, 마을버스 3번 환승 가능

부경보건고등학교 [2년제] 상담전화  
병설 부경중학교 [2년제] 051)266-4352~3  
부산시 사하구 두송로 40(장림동) www.queen.hs.kr

유료광고

### 성인 학생 모집



● 부산예원고등학교 ● 예원여자중학교

2년만에 졸업하는 성인어머니(중, 고등)학생 모집  
늦었지만 이제 어머니가 공부 할 차례입니다!

중학교 (2년 졸업)	● 초등학교 졸업자 / 중학교 중퇴자 편입가능 ● 졸업장 취득(검정고시 없음) ● 입학금, 교과서, 수업료 전액 무료
고등학교 (2년 졸업)	● 중학교 졸업자 / 고교 중퇴자 편입가능 ● 졸업후 대학진학(수시 가능) ● 교육비 : 한달 16,660원 ● 기초수급자 수업료 전액 무료
본교자랑	● 전국 최초 교육부지정 1년 3학기제 2년 졸업과정 어머니 학교 ● 23년 전통의 부산최고의 성인어머니교육 전문학교 ● 어머니들만 공부하는 전용 건물(학생/성인 구분) ● 예비학교 무료 운영(11월부터 국, 영, 수 기초수업)

버 스 : 42(남구) / 99(진시장) / 178(당감동) / 184(정관) → 옥성화학 하차 → 학교  
4호선 : 명정역 2번출구 → 99/42번 버스 → 옥성화학 하차 → 학교  
4호선 : 금시역 2번 출구 → 마을버스6번(산수유아파트 ↔ 온천역) → 회동동 하차 → 학교  
1호선 : 온천역 4번 출구 → 마을버스6번 → 회동동 하차 → 학교

부산광역시 금정구 회천로51(회동동)  
혁관인정 부산예원중, 고등학교  
입학상담 (051) 526-1852~3

유료광고

유료광고